



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미리 보는 제약바이오 7대 트렌드

“

글로벌 자본과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누가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무대입니다.

많은 국내 기업이 초청을 받아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 이전, 투자 유치를 활발히 추진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역량과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전략적으로 쌓고,
다음 성장 국면의 리더십을 확보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

편제성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리더
경영자문부문



2026년 제44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 시

2026년 1월 12일 ~ 15일

장 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개 요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 ✓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텍, 투자자들이 모여 전략 방향성과 투자 흐름 결정
- ✓ 기업들이 주요 신약 개발 동향 등 한 해 청사진 발표 예정
- ✓ 과거 유한양행, 한미약품이 빅딜을 성사시켰던 자리인 만큼 이번에도 국내 기업들이 기술수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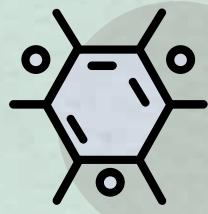
개막 전 미리 알면 좋은 관전 포인트 7가지

01



AI
신약개발

02



유전자
편집

03



개인맞춤형
의료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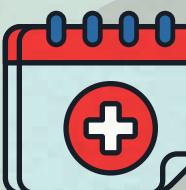
디지털
헬스케어

05



투자 환경

06



특허 만료
위기

07



비만치료제



신약개발의 기간·비용·실패 줄이는 AI

“AI로 후보물질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도출하느냐”가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

	전통적 신약개발	AI 신약개발
기간	15년 ¹⁾	7년 ¹⁾
비용	평균 약 3.1조 원 ²⁾	최대 50% 절감 가능 ³⁾
성공률	후보물질 기준 산업 추정치 0.1%	AI 발굴 후보물질 임상 1상 성공률 80-90% 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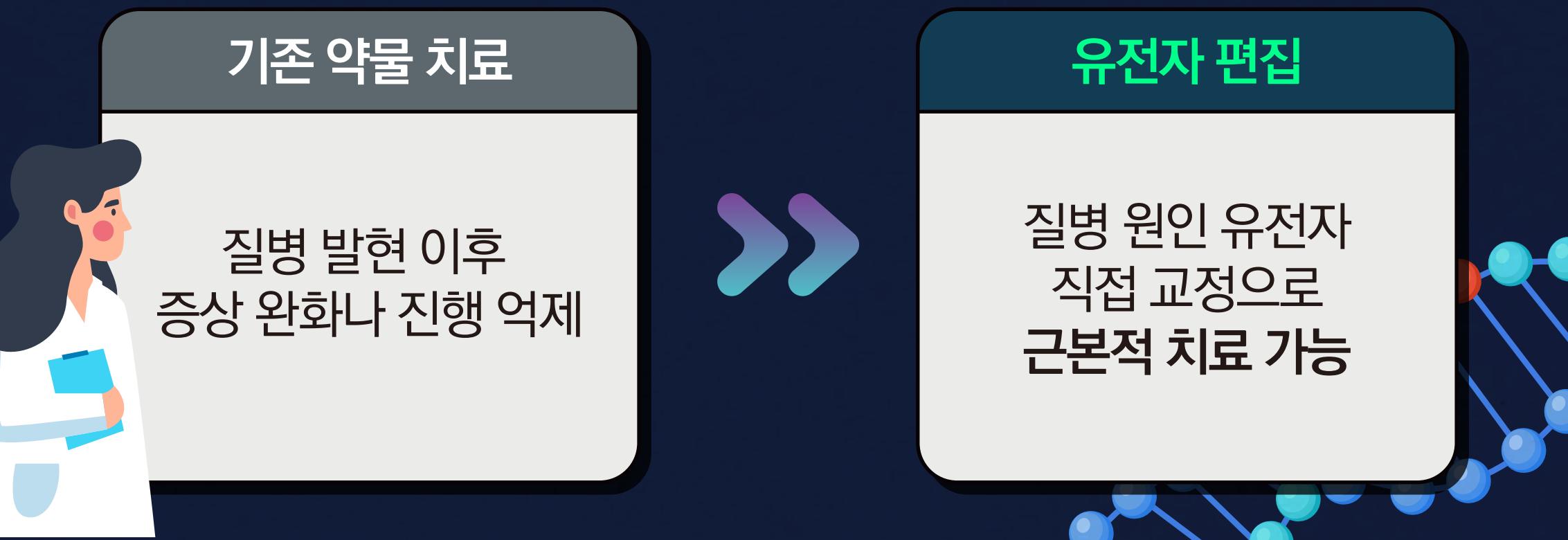
출처: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 딜로이트(22.3억 달러, 환율 1,400원 기준), 3) OECD, 4) ScienceDirect review

최근 3년간 AI 신약개발 빠르게 성장 중
(2016~2024년 AI 기반 신약 후보물질 누적 75+개 임상 진입)

출처: ScienceDirect 리뷰

'치료'의 개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유전자 편집

현재 기업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희귀 유전질환에서
고빈도 질환, 질병 예방까지 확장 가능한 플랫폼 기술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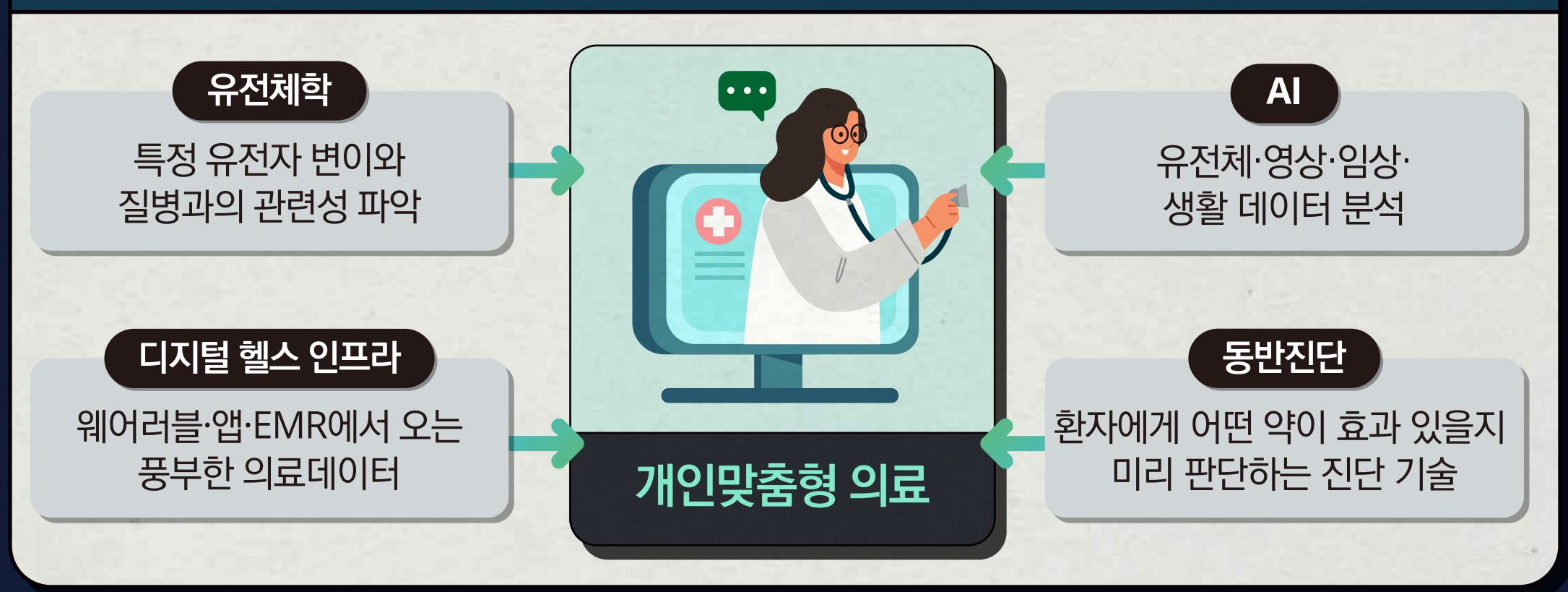


2023년, 세계 최초 CRISPR 유전자 편집 치료제
'카스게비' FDA 승인 후 초기 시장 선점

→ 이후 Intellia, Editas, Beam 등이 차세대 시장 주도권 경쟁 중

같은 병, 다른 치료 개인맞춤형 의료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 유전체·특성에 맞춘 치료 실현



개인맞춤형 의료의 발전으로 치료의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를 넘어 '예측과 예방'으로 발전



주요 기업들 움직임

- 로슈: 유전체 진단기업 인수
- 구글: Fitbit 인수 후 헬스케어 AI 분석 기술 강화

의료의 효율과 접근성 높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 ✓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원격의료는 화상진료 수준을 넘어, AI·데이터·지속 관리 중심으로 고도화
- ✓ 미국, 독일 등에서 제도적 기반 강화 추세 (원격모니터링 수가화 등)



모바일 헬스케어

- ✓ 디지털 치료제(DTx)가 모바일 기반으로 개발되어 공식 치료 보조 수단으로 인정
- ✓ 일반 모바일 헬스 앱은 실시간 피드백 기반 환자 행동 변화 유도



연속성 있는
케어 생태계

- ✓ 웨어러블, 앱, 병원 EHR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케어로 발전 중(미국, 독일 등)
- ✓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이 헬스 데이터 및 플랫폼 경쟁에 참여

단순 투자에서 동행으로 바꾸는 헬스케어 투자 흐름

기업 유형별 동향

빅파마

특허 만료 임박한
블록버스터 대체를 위해
바이오테크 기업 적극 인수



중소 바이오 기업

현금 확보와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한
전략적 매각·제휴에 집중

투자 집중 분야

- ✓ AI 신약 개발
- ✓ 유전체·정밀의료 플랫폼
- ✓ 디지털 치료제
- ✓ 원격환자모니터링 등

자금 조달 방식

최근 IPO 외에도 전략적 제휴, 공동개발,
마일스톤 투자 등 리스크 분산 및
장기 파트너십 중심 구조 확산

빅파마의 특허 만료 위기 대응법



2030년까지 글로벌 제약사들은
대규모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 만료 예정

※ 만료 시 제네릭/바이오시밀러 등장으로 매출 급감

“단순한 제품 보호 종료가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생존 전략에 직접적 영향”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

'매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대체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

✓ **M&A 증가:** 자체 개발만으로는 매출 공백 해소 어려워,
외부 기술 흡수에 적극적

✓ **항암제/면역치료제 강화:** 매출 대체 가능성이 큰
고성장 영역에 집중

✓ **ADC, mRNA, 유전자 편집 등 차세대 기술 투자**

✓ **AI·디지털 기술 활용:** R&D 효율화, 타깃 최적화

✓ **라이프사이클 확장:** 적응증 확대 및 제형 리뉴얼로 매출 방어

비만을 넘어 질병까지 비만 치료제의 진화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1년까지 약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Morningstar & PitchBook

비만 치료제 주요 트렌드

적응증 확장 중심의 R&D

- ✓ 단순 감량 → 당뇨·심혈관은 진입했으며 지방간염·알츠하이머까지 확대 시도

제형 다양화

- ✓ 경구형 GLP-1, 투약 간격 확대, 패치형 등 복약 편의성 향상 경쟁

복합작용제 개발

- ✓ GLP-1 + GIP / GLP-1 + Glucagon →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

생산/공급망 확대

- ✓ 수요 폭발로 인해 공장 신설 및 생산능력 증설에 대규모 투자

시장 진입을 위한 M&A 확대

- ✓ 후발 제약사들은 스타트업·바이오텍 인수 통해 빠른 진입 시도

국내 참가 기업 동향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메인 트랙 발표 기업은
'지금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주요 국내 기업이 글로벌 투자자 및 제약사 앞에서 전략 비전과 성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

- 메인 트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 아시아태평양 트랙: 알테오젠, 디엔디파마텍, 휴젤

✓ 다수 국내 기업들은 공식 발표 외에 파트너링 미팅, 기술 이전, 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주력 예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 제약사, 의료 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기업의 전략적 과제와 혁신을 함께 해왔습니다.

약사 등 전문 자격 소지한 전문가를 국내 최대로 보유한 산업 전문팀은 다년간의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기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재성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리더 |
경영자문 부문



02 6676 1979



@ jpyeon@deloitte.com



안동휘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회계감사 부문



02 6676 1617



@ doahn@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경영자문 부문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이호진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세무자문 부문



02 6099 4472



@ hojilee@deloitte.com



안종식 수석위원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컨설팅 부문



02 6676 2988



@ jongsahn@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